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 / 성소주일(성모 성월)
제31권 25호(가해) 2011.5.15

[목사]



저희는 물웅덩이와 풀밭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떼입니다.
힘없는 양떼는 참된 목자를 목말라합니다.
목자의 탈을 쓴 수많은 도둑과 강도가
저희를 죽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였던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참된 목자이며 양들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당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으나
당신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어떤 것이 당신을 따르는 것인지
힘없는 데다 어리석기까지 한 저희는
낮설고 신기한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만이 저희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는
당신만이 생명을 얻기 위해 드나들 수 있는
당신만이 바로 구원의 문이시기에
당신만을 따르는 슬기로운 양들이 되게 하소서.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진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프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팔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석돈 요셉 (생)박지연 요안나
주 일 낮 미사	(연)이숙자 루피나, 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이본옥 안젤라, 박송희, 윤홍중, 엄익찬 안토니오, 이상범 다윗, 김완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엄은섭 도로테오, 박노현 요한, 이원일 안토니오 & 황인홍 빗토리아 (생)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정학순 발바라, 김영길 안드레아, 노세미 마리아, 박진숙 로사, 권영옥 루시아, 이크리스 아가토,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2,14-36-41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례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2,20-2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1-1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6	243	243
봉헌	243	225	225
성체	376	306	291
파견	327	205	333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수단들은 기술과 진지한 헌신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생명의 첫 단계에서, 자연적인 출산 조절을 위한 센터들은 책임성있는 부모 역할을 도와주는 가치 있는 것들로서 장려해야 한다. 그것에서 모든 개인들의,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기들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된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진실한 자기 증여의 이상에 따라서 내려진다. 혼인과 가정 문제 상담기관들 역시, 인격과 부부와 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시각과 일치하는 인간학에 따라서 인도(引導)하고 예방해주는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과, 모든 가정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사명을 지원하고 함께 해주는 가치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원조 센터들과,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가정들이나 센터들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의 활동 덕분에 많은 미혼모들과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으며, 새로이 잉태된 생명이나 세상에 갓 태어난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얻고 있다.

근경이나, 부적응, 병이나 거부 등의 여건들 때문에 생명이 도전을 받는 경우를 위한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희망을 가질 이유를 주고, 삶을 영위할 실제적인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자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로는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단체들, 미성년자들과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거주 공동체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보호 구제 센터, 특히 장애인들과의 연대를 위한 협회 등이 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때에도, 노인들 특히 자신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노인들과, 말기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가장 적절한 수단들을 찾아내는 것 역시 자선이다. 이러한 경우 가정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편 가정은 사회 복지 기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말기 환자 병동에 도움을 청해, 공공기관이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의학적, 사회적인 봉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요양원들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병자나 임종자들을 간호해 주는 기관에 불과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특히 그리스도교적인 의미가 인정되고 이해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들, 또는 어떤 경로로든 교회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진으로 있는 기관은 특히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계속)

“가지 않은 길”

‘성소(聖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聖스러운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르심 중에 어떤 것이 성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는 것을 바로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지금 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릴 수 있으며, 그것을 따르는 길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주교님은 어렸을 때 집안이 몹시 가난했는데, 집에 오신 신부님께 어머니가 계란찜을 해 드리는 것을 보고 계란찜이 먹고 싶어 신학교에 가셨답니다. 후에 주교님까지 되셨지만... 또한 나환자의 벗이 되신 신부님도 계시고, 노동자가 되신 신부님, 병을 고치는 의사 신부님, 음악을 하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수도자가 되는 것도 성소이고, 성가정을 만드는 가장이 되는 것도, 성모님 닮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도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성소의 삶입니다. 성소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모습의 삶이든 ‘사랑에로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사랑하기 위한 ‘자기 자리’를 찾아내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의 자리’라고 믿어도 됩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곳은 성소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성소라는 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나긴 여정입니다. 우리 삶의 성소는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죽으면 수의 대신 칠회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비로소 성소가 완성되어 사제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들의 사랑도 지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일입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서로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서로 부럽기도 하고, 그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성소를 받고 나름대로 성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사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사제에게 신자들은 목숨 바치고 싶은 연인이어야 합니다.

사제에게 신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착한 사제가 되도록, 건강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제 되도록, 또한 사제 공동체가 하나로 화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요즈음 차츰 줄어드는 사제, 수도자 성소를 걱정하며, 부모들이 훌륭한 자녀를 바치도록, 하느님께 나아갈 자녀를 붙잡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울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사목회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 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가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 제8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체육대회

● 미사시간 임시 변경 : 오전 7시30분과

오전 10 미사

● 일시 : 오늘 주일(15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추첨을 통한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등 김치냉장고, 2등 I-POD, 3등 고급전기밥솥,
4등 32인치 LCD TV, 이밖에 고급가방, 쌀, 식사권,
엔진오일 교환권 등...
- 경품추첨권은 당일 천교장에서 나눠 드립니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6월12일(주일) 오후 2시
- 범위 : 루카복음, 전례상식, 성가 알아맞추기
- 게임방식 : Jeopardy 방식의 30문제
- 팀구성 : 6구역(토런스 동,서,남,북, 하버/카슨, PV)
- 선수구성 : 구역대표선수 최대 7명 선발 가능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배론청년회장 ☎(310)650-6057

◆ 구역대항 친선 탁구대회 오늘 주일 종료

- 지난 2주간 구역별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온 친선 탁구대회가 오늘 끝납니다. 그동안 단식, 복식, 혼합복식에 참가하여 분투한 남녀교우 선수여러분을 수고하셨습니다.
- 참가구역 :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의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야의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문의 : 본당 신부님

◆ 서양화가 김윤진 카타리나 /주선희 클라라 초대전

- 일시 : 5월14일~31일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김윤진씨는 백삼위 본당교우로 카타리나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대소작품 14점을 전시합니다. ☎ (213)365-8285

◆ 제24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2일(목)~5일(주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참가비 : \$150(마감 5월15일)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예비자 교리반 LA 주교좌성당 전학

- 일시 : 6월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대상 : 예비자와 가족, 봉사자
- 내용 : LA주교좌성당의 의미와 역사

◆ 초중고등부 레저오 단원 모집

- 활동내용 : 무숙자 음식봉사, 병자와 노인 방문
- 주회합 : 매 주일 오후 1시~2시, 2층교실 뮤직룸
- 문의 : 황해리 헬레나 ☎(310)749-3171
서정우 미카엘 ☎(310)738-2121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5일(주일) : 본당체육대회 구역별 점심 준비
- 5월22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소고기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구자운	권태만	금영도	김광자
	김교복	김기석	김기정	김낙기	김대우	김병학
	김양금	김영경	김영길	김옥찬	김원호	김윤진
	김재영	김정웅	김종렬	김풍길	김호순	노세미
	민기남	민순섬	민형기	박광자	박종민	배기엽
	송기철	송준규	신중철	오세원	오일순	오현희
	윤석구	이근모	이병찬	이재철	장영우	정규숙
	정병훈	정열모	주대중	주영석	지경수	최금옥
	최의수	황인중				
합계 : \$4,220						
미사헌금 : \$3,190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구자운	권태만	금영도	김교복
	김기석	김기정	김낙기	김대우	김병학	김양금
	김영길	김원호	김윤진	김풍길	김호순	노세미
	민기남	민순섬	박광자	배기엽	신중철	오세원
	오현희	이근모	이병찬	장영우	정규숙	정열모
	주대중	주영석	최의수	황인중		
합계 : \$2,820						
요셉회 14처(중 제1처) 봉헌 : \$2,000						
감사헌금 : 김풍길 정미영						

공지사항

주일학교 소식

◆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19일(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교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재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 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접수: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제1회 가톨릭청소년 성화 그리기 대회

- 주제와 제목 :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23)
- 대상 : 초중고등부의 영세받은 학생
- 응모비 : \$10 * 마감 : 5월21일
- 보낼곳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310)953-7474

◆ 제4회 2011 FIAT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3일(목)~26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참가비 : 무료
- 대상 :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구성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교육, 영성교육
- 문의 : FIAT웹사이트 www.fiat.org

◆ FIAT 재단 2011년 장학금 신청 접수

- 자격 :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가톨릭학생들(12학년~대학원). 커뮤니티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봉사자들.
- 장학금 : 최소 \$500 이상 총 \$20,000
- 문의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신청마감 : 5월20일(금), 온라인신청 : www.fiat.org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형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정희 올리아 5/6(금) 오후 7시 830-0106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3/18(금) 오후8시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415-0034 5/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테나타 808-500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고천용 377-6328 5/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정충로 안토니오 325-9915 5/13(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323-717-7866 5/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불행한 똑똑이’ vs ‘행복한 바보’

요즘 이런저런 모임에서 ‘바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사람 바보 아냐?’, ‘야, 이 바보야!’, ‘바보 같은 것이지.’ 대체로 바보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요즘은 이 바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원래 바보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요즘은 일부러 손해를 보는 사람, 크게 양보하는 사람, 큰 공을 세우거나 성과를 내고도 생색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왔고, 곳곳에서 불꽃 튀는 승부전이 벌어져 왔다. 양보하는 것보다는 제 것을 먼저 챙기려는 욕심이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도 나누고 배려하는 덕목이 늘어나고 있다. 내 주위에 ‘배나감사회’라는 작은 모임이 있다. ‘배려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사랑하자’라는 뜻을 가진 기업인들의 모임이다. ‘다죽회’라는 모임도 있다. ‘내가 번 돈을 좋은 곳에 다 쓰고 죽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 봐야 자식만 망치기 쉬우니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돈을 다 쓰자는데 뜻을 모은 사람들이다.

남들이 보면 다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어렵게 번 돈을 왜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느냐고 가우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스스로를 ‘행복한 바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살고 있다. 나는 요즘 우리 사회에 ‘불행한 똑똑이’보다 ‘행복한 바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일이다. TV 방송국에서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는데, 하루는 술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다. 이분은 작은 주조회사를 평생 가꾸어서 성장시킨 분인데, 마침 한약재가 첨가된 술을 만들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기술자 출신인데다 과묵하고 지나치게 겸손한 분이어서 방송진행자로서는 조금은 힘겨운 손님이었다.

녹화가 끝날 즈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히트시킨 술은 한약재가 수십 가지 들어 있어서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몸에 좋은 건가요?” 연

세가 많으신 분이 방송 녹화하느라 고생을 하신데다가 너무 겸손하고 과묵한 분이려 그야말로 명석을 깔아 드리는 질문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회장님은 이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답변을 하였다. “그것도 술인데 몸에 좋기야 하겠어요? 조금씩 드셔야죠...” 진행자인 나도 놀랐고 유리벽 너머에 있던 PD도 놀라는 눈치였다.

이날 녹화를 끝나고 이 회장님을 배웅하고 돌아왔더니 방송국 직원 중에 한 명이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 회장님 바보 아냐, 홍보기회를 그냥 놓치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다. “나는 감동받았어! 오늘 저녁 회식을 그 술로 하자구!” 요즘 이런저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나는 행복한 바보를 찾는 버릇이 생겼다. 행복한 바보와 함께하면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윤은기 스테파노 / 한국중앙공무원교육원장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